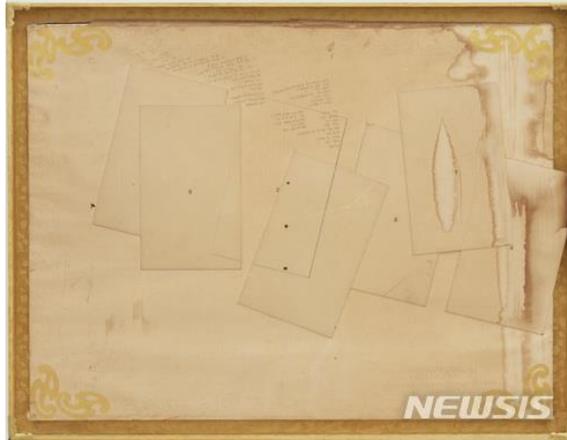


## [미술전시] 김용익 '드로잉'·김기철 '소리'·조용원 '나무'

March 20, 2018 | 박현주 기자

page 1 of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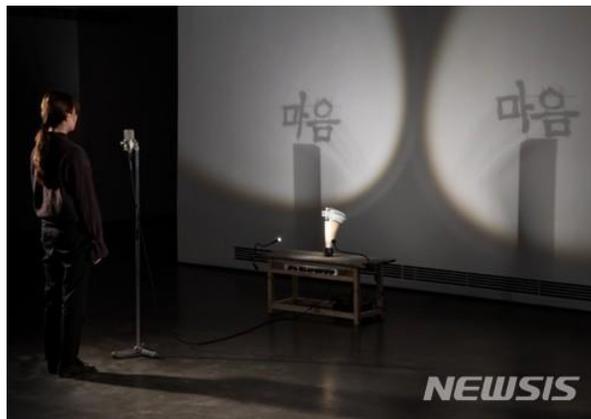


【서울=뉴시스】 김용익 개인전 'Endless Drawing'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국제갤러리= 김용익 개인전 'Endless Drawing'전을 20일부터 갤러리 2관서 전시한다. 작가의 최신 회화 작품을 선보인 지난 2016년 국제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에 이은 두 번째 개인전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작가 작업의 근간을 이룬 다양한 드로잉 작업 40여 점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회화의 밑그림 정도로 인식되는 '드로잉'을 새롭게 바라볼수 있는 전시다. 4월22일까지



【서울=뉴시스】 김기철, 마음 Maum, 2013-2018. 소리가 움직임으로 바뀌는 장치로, 관객이 마이크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면 그 소리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쓰러진다.

◇OCI미술관= 소리 조각가 김기철 개인전 'The Depth of Cycle(주기의 깊이)'전을 22일 개막한다. 1993년부터 20여 년 동안 '관음(觀音)' 즉 '소리 보기'라는 한결같은 주제로 작업을 하는 작가다.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소리의 시간, 즉 물체의 진동이 지속하고 번져나가는 주기(cycle)에 중점을 둔다. 소리는 곧 마음이요, 이는 퍼져나가는 것이고, 나로부터 떠났으나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고, 제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두 같은 것이라는 선문답 같은 사색을 담담하게 펼친다.



【서울=뉴스시스】 나무에 새김, 色臨 \_ 조용원 개인전

◇조선일보미술관= 조용원 작가의 '나무에 새김, 色臨'전을 4월13일부터 연다. 작가만의 무한하고 반복적인 '새김'으로 나뭇결에 새로운 패턴의 결(wave)을 선보인다. 반듯하게 잘려지고 재조합된 나무에 새기는 작업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무한한 선(線)이 연결되어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또는 미국 서부에 거대한 앤탈로프 캐니언 협곡과 같은 자연을 표현한 시리즈 신작 25여 점과 오브제 10여점을 전시한다.